

그림으로 엮은 童心의 세계

「동시나라」·「동화선물」 시리즈
강소천·강정규 외 지음

최근 순수 창작 동시·동화들만을 모은 책이 시리즈로 출간돼, 아동출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大敎文化(대표 姜榮中)에서 발간하고 있는 「동시나라」·「동화선물」 시리즈가 곧 화제의 책.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발간하기 시작한 이 시리즈는, 이미 처음 펴낸 10여권이 재판을 들어가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수 창작 동시·동화만 모아

아이들에게 동시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동시나라」 시리즈는 12월말로 30권째를 펴낸다. 첫권 「아기꿈」(윤석중)으로 시작, 「귀여운 싸움」(박병엽)·「소나기 그치고」(어효선)·「아버지 젖꼭지」(신현덕)·「이렇게 살아가래요」(정용원) 등 우리나라 대표 동시인들의 창작 동시들을 모았다. 권당 40여편의 동시가 수록돼 있는데, 특히 신작시에 비중을 두어 이중 30여편이 신작시로 꾸며졌다. 작가 역시 다양하게 망라돼 있다. 윤석중·강소천(작고)·박경용·권영상씨 등 원로에서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국내 동시인들을 총동원, 우리나라 동시세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그동안 주로 서울에 있는 작가의 작품만 발표된 점을 고려, 허동인(경북)·김삼진(전남) 등 지방의 동시인들을 참여시켜 지역적 안배까지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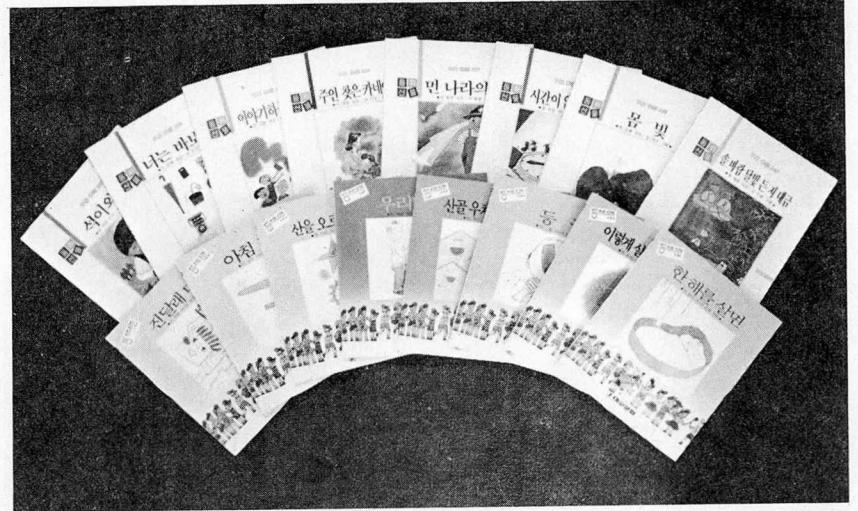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동시 작가가 2~3백명은 족히

될 겁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동시집의 수요는 극히 적어 동시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부족하죠.”

편집부장 李炳哲씨(37)는 이 시리즈가 단순한 지면의 갈증 해소 뿐 아니라, 이것이 자극이 되어 더 좋은 동시가 많이 씌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동화선물」 시리즈 역시 순수 창작동화만을 모았다. 「민들레와 달」(강정규)·「섬으로 간 아이들」(강정훈)·「작은 꽃개의 붉은 꽃잎」(배익천)·「가장 귀한 커튼」(손동인) 등 이미 30권을 발간, 앞으로 2백권을 목표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 「동화선물」 시리즈는 우리나라 동화작가들이 기왕에 발표한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동화 한편씩을 골라 실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동화’란을 만들어, 한편의 동화가 끝난 뒤 그 뒷예기를 그림으로 유도하면서 스스로 써보도록 했다. 거기에 ‘그림말 이야기’와 ‘마음편지’ 등을 곁들여 아이들의 창작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꾸며졌다.

이 시리즈의 기획, 작품선정 등의 모든 작업은 편집부에서 직접했다. 즉 고문격인 작품선정위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 지금까지의 출판계의 관습적인 작품선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朴부장은, 그러나 한 작가의 기왕에 출간된 작품집들을 일일이 읽어보고 문학과 요즈음 아이들의 기호를 고려해서 작품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내 작품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데 왜 안들어갔느냐” “너희들이 뭘 알아서 내 작품을 심사하느냐”는 등의 말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나 이것은 개인 작품집을 내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게 읽히는 글’을 고르다는 기준을 확실히 했다고 한다.

다채로운 ‘일러스트’ 곁들여

이 시리즈의 색다른 특징은 참신한 일러스트레이션이 각권마다 곁들여진 점에 찾을 수 있다. 「동시나라」 시리즈는 기존의 동시집이 시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 약간의 컷을 덧붙이던 것과 달리 일러스트 자체가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꾸며졌다. 동시 내용을 그대로 일러스트 속에 담아 그 안에서 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 내용이 다소 어려워 이해할 수 없을 때, 일러스트만 보면 곧 무엇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동화선물」 역시 동화내용에 맞는 일러스트로 꾸며, 일러스트가 보조수단 아닌, 동화와 일러스트가 하나로 만나게 꾸며져 있다. 여기에는 김천정·위승희씨 등 한국무지개회를

중심으로 박건하·이혜리·이형준씨 등 신인급의 참신한 아동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대거 동원됐다. 이러한 신진들의 참여로 어린이의 동심이 잘 표현된 새로운 형태의 일러스트 창조를 통해, 업계나 독자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자는 것이 회사측의 의도이다.

이 시리즈가 발간되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아동작가들이 속속 원고를 보내고 있어, 이들 작품도 검토해보고 좋은 작품은 모두 펴낼 예정이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창작 동시·동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좋은 작품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시리즈를 발간하겠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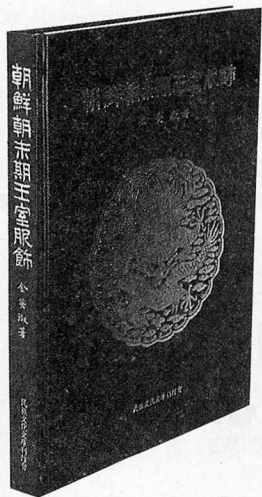
어쨌든 팔리지 않고 읽히지 않는 책으로 여겨져온 동시집·창작동화집을 집중적으로 펴내 아이들에게 보급하려는 출판사측의 의도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시리즈물이 거듭되다 보면 빠지기 쉬운, 권수 채우기에 급급해지는 현상을 지양하기 위해선 보다 더 좋은 작품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교문화/B6변형/각권 80면/각권 1000원

— 최윤희 기자

王室服飾 전체를 한눈에

「朝鮮朝末期王室服飾」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조선왕조 마지막 황족인 英親王家的 복식을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한 「朝鮮朝末期王室服飾」이 최근 간행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이미 「高句麗時代服飾考」(1966) 「朝鮮時代後期宮中服飾研究」(1983) 등의 논문과 「韓國服飾史資料選集」(1982, 1984) 등의 저서를 내며 30여년간 복식사 연구 외길을 걸어온 동양복식연구원 원장 金英淑씨.

지금까지의 복식사 연구가 대개 도판이나 출토품을 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책은 영친왕비 李方子여사의 기증으로 일본 東京국립박물관에 고스란히 소장돼 오던 유물을 김영숙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實査한 끝에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복식에 관한 연구는 문헌상의 기록과 그를 뒷받침하는 실물의 고증이 조화를 이루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다고 볼 때, 「조선조말기왕실복식」

의 간행은 그만큼 뜻있는 작업이라는 것. 특히, 해의 소장품이라는 자료접근상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1963년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渡日, 조사하는 등 25년만의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저자의 집요한 노력이 높이 평가된다.

내용은 크게 ‘도판’편과 ‘해설’편으로 나뉘는데, 도판편에는 모두 217점의 유품이 각각 王服, 王妃服, 王孫服 및 기타 裝身具로 분류, 수록돼 있다. 일부 복식의 경우, 인물이 실제 착용하고 있는 사진 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사실성을 높이기도 했다.

해설편에는 해당 복식의 치수, 재질, 문양, 용도 등과 함께 문헌상의 고증까지 곁들여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복식연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말미에 의복發記를 따로 정리해, 예컨대 ‘영친왕 誕後 1년에 製進한 옷’이라든가, 혹은 ‘영친왕 嘉禮時의 婚需’ 등

임을 명시함으로써, 옷과 관련된 궁중풍속의 일단을 엿보게도 해 준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소개된 영친왕비의 복식들은 現傳하는 복식유물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예복과 평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장식품을 일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작연대가 그리 멀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前代의 왕실복식을 추정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도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들 복식이 갖는 극히 儀禮의인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인식체계 등 당대의 사회상을 규명하는 데도 이 「조선조말기왕실복식」은 요긴한 자료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문화문고간행회/타블로이드변형/275면/7000원